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 Bloomberg: 1월 비즈니스 제조 장비 주문, 5개월래 최고 상승
- Bloomberg: 고금리로 주식과 기업 수익 피해당해...직원은 유지
- WSJ: 아파트 렌트비 하락...미 주택 시장 수요 흔들

[미국 금융]

- Bloomberg: 모건스탠리, “3월에는 베어마켓 된다”

[중국/아시아 경제 금융]

- WSJ: 많은 미 기업들, 중국 비즈니스 확대한다
- WSJ: 중국 경제 회복, 소비자 가계 저축 얼마나 버티는지에 달렸다
- Goldman Sachs: 중국의 리오프닝과 주변에 끼치는 경제/금융 여파
- Goldman Sachs: 중국이 회복되면서 PE에서 E로 전환

[개인 IT]

- WSJ: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데이터 보호 팁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근로자 붙잡는 고용주들, “해고는 남 얘기”
- CNN Business: 퇴직금 관련 연방 가이드라인 궁금증은?
- WSJ: 아마존, 저성장 맞서 “당일 배송” 서비스 확대
- CNBC: SK 텔레콤, 2025년 항공 택시 출시 계획

[보고서]

- 모건스탠리 주간 에쿼티 전략: Testing Critical Levels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Economy Week Ahead: U.S. Housing Market in Focus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화요일

- 12월 S&P CoreLogic Case-Shiller National Home Price Index
- Conference Board’s February consumer-confidence index

수요일

- 2월 S&P and the ISM 제조 분야 구매 관리자 지수
- 연방 상무부 건축 지출 내역(주택 및 비주택)

목요일

- 미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 유럽 2월 인플레이 수치

금요일

- 2월 S&P and the ISM 서비스 분야 구매 관리자 지수

WSJ 기사

Bloomberg: US Business Equipment Orders Increase by the Most in Five Months**1월 비즈니스 제조 장비 주문, 5개월래 최고 상승**

- 1월 미 제조용 비즈니스 장비에 대한 주문 건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로 늘었다.
- 비즈니스 차용 비용이 높고 경기 불확실성에 계속되지만, 기업체들이 장기적인 자본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다.
- 비행기, 군사 장비를 제외한 장비 투자를 살필 수 있는 핵심 자본재 주문이 1월에 0.8% 증가했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월요일 밝혔다. 12월에 0.3% 감소에서 방향을 튼 것이다.
- 연방 정부의 GDP 보고서에서 장비 투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자본재 출하량(shipments)은 1.1%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Higher Interest Rates Slam Stocks and Profits But Spare Workers**고금리로 주식과 기업 수익 피해당해... 직원은 유지**

- 연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기업들 입장에서 일손이 부족해 임금을 올리고 있다.
- Home Depot와 월마트의 경우만 보아도, 홈디포는 시급 직원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키로 했고, 월마트는 최저 임금과 수당을 올렸다. 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특히 생산직과 비 감독직 근로자들은 2007년 이후 임금이 다른 직급에 비해 가장 빨리 상승했다.
- 근로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GDP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42%에서 6월 현재 44%로 늘었다.
- 반면에 지난 4분기에 기업 수익은 월가 기대치 보다 0.1% 감소했으며, 지난 2020년 1분기 이래 최악의 실적이었다.

Bloomberg 기사

WSJ: Apartment Rents Fall as Crush of New Supply Hits Market**아파트 렌트비 하락...미 주택 시장 수요 흔들**

- 지난여름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미국의 주요 대도시 아파트 렌트비가 3.5% 하락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세입자들이 낼 수 있는 렌트비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증거라고 분석된다.

- 미국의 아파트와 주택 임대 시장은 팬데믹 시기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2년간 렌트비가 25% 올랐고, 신규 공급도 이어졌다. 높은 모기지율과 렌트비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임대를 찾기도 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신규 임대료 증가율은 전년 대비 약 2~6% 늘어 2022년 초 성장 속도보다 크게 느려졌다. 시애틀, 보스턴, 라스베이가스 등 대도시의 렌트비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 단독주택에 대한 렌트비도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March Will Bring Bear-Market Risks for US Stocks, Morgan Stanley Says****모건스탠리, “3월에는 베어마켓 된다”**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3월에 미 주식의 역풍은 더 커질 것이다. 기업들 수익이 떨어지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 S&P 500는 지난해 10월 저점에서 17% 반등했는데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 그러나 최근 3주 동안은 계속 하락했다. 강한 인플레이 지표가 보이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이다.
- Credit Suisse Group AG도 글로벌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적인 지표가 더 많다면서 수익 추정치 관련해 추가로 5%에서 10%의 하향 조정을 예상했다.

Bloomberg 기사

[중국/아시아 경제 금융]**WSJ: From McDonald's to Ralph Lauren, U.S. Companies Are Planning China Expansions****많은 미 기업들, 중국 비즈니스 확대한다**

- 패스트푸드인 맥도날드부터 고급 패션인 랄프 로렌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 기업들은 중국의 소비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와 미·중 간의 지정학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중국에 수백개의 식당을 오픈 중이다. 랄프 로렌과 Tapestry도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고 있다.
- 식품 회사 Tyson Foods와 Hormel Foods사도 중국 소비자들이 미국 스타일의 식품에 대해 장기적으로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시설을 오픈하고 있다.

-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물론 다른 회사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아직 중국의 경제 상태에 대해 신중한데다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WSJ 기사

WSJ: Covid-Era Savings Are Crucial to China's Economic Recovery 중국 경제 회복, 소비자 가계 저축 얼마나 버티는지에 달렸다

-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가 얼마나 반등할 수 있을지는 팬데믹 시기 가계 저축과 기업들이 쌓아온 유동자산을 얼마나 유지하는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중국 가계 저축률은 2019년보다 3% 오른 33%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대기업과 수출업체들도 2020년부터 매년 평균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쌓았다.
- HSBC와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해제가 소비자들의 지출 회복을 부채질하면서 올해 연간 소비 증가율이 8%까지 오를 것으로 보았다.
- 하지만 주택 시장의 침체와 불확실한 고용 시장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저축을 더 늘리고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중국의 현재 초과 저축 규모가 크다고 해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예금이 3년에서 5년 단기 예금이라 쉽게 지출로 전환되기 어렵다.
- 저축보다 소비 욕구와 더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 소득 증가와 고용 시장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저축이 지속적으로 소비자 지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믿음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WSJ 기사

Goldman Sachs: Asia Views - Tracking the last reopening 중국의 리오프닝과 주변에 끼치는 경제/금융 여파

1. 지난달에 달리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통화들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지역적인 약세 현상은 중국 주식의 부진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좋지 않게 보인 것이다.
2.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향후 수개월 내에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과 시장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 봉쇄령 지수(China Effective Lockdown Index)도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이젠 고속도로 교통과 전철 등 이동률(Mobility rates) 수치가 팬데믹 전보다 높다는 점이다. 부동산 분야 또한 여전히 1년 전에 비해 10%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늘고,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지난 수주 간 회복세를 보인다.

중국 소비자가 2022년 호황기에 소비한 것처럼 소비한다면(봉쇄량은 없었으나 상당한 제한 조치가 있었던 1분기와 3분기), 올해 소비자 지출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일 듯하다(실질 기준으로 +8.5% 예상).

3. 2월 28일에 공식적인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PMI)가 발표되는데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3월 14일에 1월/2월 활동 지수가 발표되는데 1분기 GDP는 연율 기준으로 5%, 2분기에는 연율 9%로 예상한다. 물론 백악관은 향후 수주 내에 중국에 대한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4. 중국의 회복 때문에 아시아, 남미 등 해외 국가에게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긍정적인 여파를 줄 것이다. 특히 상품 수입이 늘고, 중국인의 해외 여행에 따른 서비스 수입 증가, 그리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상승효과다. 중국의 오픈업 하는 산업들에 대한 수요 여파로 인해 올해 4분기에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연간 2%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실업률은 여전히 높다 보니 임금 인플레이션은 그리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5. 현재 동아시아 교역은 약하다. 약한 수요와 물가 하락으로 수출이 작년에 비해 10% 하락한 상태다. 그러나 2분기에 수요 성장이 개선되면서 올해 중반까지 무역과 산업 활동이 저점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6. 환율의 경우 가까운 시일에 달러 반등이 계속될 수 있지만, 만약 1)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정해지고 2) 원화와 태국 및 말레이시아 화폐가 아웃퍼폼할 경우 달러는 하락할 것이다. 주식에 있어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비중 확대를 유지하지만, 추가 수익은 밸류에이션 상승보다는 어닝 성장 때문일 것으로 예상한다.

Goldman Sachs 기사

Goldman Sachs: China Musings - Pivoting to E from PE as China recovers

중국이 회복되면서 PE에서 E로 전환

1. 중국의 MSCI 주가지수는 1월에 플러스 9%로 조정되었다(반면에 이머징 마켓은 마이너스 3%, 선진국은 플러스 2%).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에 중국 주식이 20% 가격 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코비드는 이제 중국에서 끝물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봉쇄령지수인 Effective Lockdown Index (ELI)는 중국 이동률이 거의 정상이라는 것. 경제 성장률 관련 올해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9%와 7%. 올해 전체적인 GDP는 5.5%로 예측된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여기서부터 계속 개선될 것이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연속 성장은 우리 경제학자들 예측에 따르면 9% 및 7%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2023년 GDP 성장 예측이 Bloomberg 컨센서스보다 0.4pp 높은 5.5%를 뒷받침한다.

3.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의 재오픈업 때문에 중국 MSCI는 최상의 기록을 보였다. 작년 10월까지 크게 어려웠지만 이후 인터넷 규제 완화, 주택 지원 회복 정책, ADR 상장 폐지 위험성 회복 등 때문이었다.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최고조에 달한 12월 초 이후 중국 주식은 11% 상승했다.

4.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다음과 같은 수익 테마에 유리하게 접하는 업종과 기업이 펀더멘털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첫째로, 코비드 규제로 가장 타격이 심했던 분야에서 생산 격차를 줄이고, 매출을 정리하는데 순조로워질 것이다. 특히 일부 소비자와 산업 경기에서 그렇다.

둘째로, 수요와 톱 라인 성장이 회복되면서 팬데믹 기간 중에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운영 레버리지가 시작될 수 있다.

셋째로, CPI와 PPI 추세의 간격이 벌어지면 강한 가격 결정력과 브랜드를 갖고 있는 소비자 대면 기업들에게 좋은 상황이 된다. 이같이 수익이 교차되면서 골드만삭스가 믿기에는 보험, 소비자 서비스, 필수품이 견고한 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한다.

Goldman Sachs 기사

[개인 IT]

WSJ: How to Protect Your iPhone Data From Thieves 아이폰 사용자들을 위한 데이터 보호 팁

- 은행 앱과 애플 AAPL을 통해 신용카드 등에 접근하는 데이터 해킹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휴대폰 안의 사진, 메모, 메시지까지 데이터를 모두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휴대폰에 설정된 암호와 Face ID, Touch ID만으로는 장치 데이터 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팁을 사용하면 데이터 해커들의 접근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1. 물리적으로 화면을 가릴 것: 해커들은 멀리서 비밀번호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도 사용한다. 가능한 Face ID, Touch ID를 사용하고 암호 입력 화면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2. 암호를 강화할 것: 최소 6자리 숫자와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고, 자동 잠금 시간을 짧게 설정한다.

3. 추가 암호를 사용할 것: Venmo, PayPal과 같은 Cash App에서는 아이폰과 다른 추가 암호를 설정한다.

4.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 키체인 사용을 주의할 것: 애플 기기에 내장된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 키체인 기능은 편리하지만, 애플 암호만 있다면 그 안의 은행 계좌를 포함, 모든 접근이 쉬워진다. 타사 키체인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중요한 암호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

5. 중요 문서의 사진을 삭제할 것: Apple Photos에 여권, license, SSN과 같은 중요 문서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타사의 보안 파일 저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6. 아이폰을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것: 아이폰을 도난당했을 경우 최대한 빨리 다른 장치를 통해 iCloud에 로그인-장치 찾기를 통해 도난당한 아이폰을 비활성화하고 Google, Amazon, Cash App 등 중요 계정의 암호를 변경한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What Layoffs? Many Employers Are Eager to Hang On to Workers 근로자 붙잡는 고용주들, “해고는 남 얘기”

- 노동 시장을 냉각시키려는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크를 제외한 산업들은 여전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는 20년 사상 최저 해고,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3.4%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고용주들이 최근 몇 년간 근로자를 뽑고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알게 되면서, 잠깐의 침체 이후 또다시 노동력이 부족해질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들을 붙잡도록 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 게다가 레저, 환대업종 등 서비스 사업은 여전히 수요가 강하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인플레이 압력을 더 높이며 연준의 금리 인상을 유도해 경기 침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 그러나 현재의 경기 침체에 대한 추상적인 두려움이 실제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대량 감원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NYT 기사

CNN Business: There are new rules about severance agreements. Here's what you need to know

퇴직금 관련 연방 가이드라인 궁금증은?

- 퇴직금 관련한 연방 노동위원회(NLRB: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최근 결정에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그 결정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아래 고용주와의 합의인 1) 회사 문제점 공개 제한(non-disparagement) 2) 비공개 합의(confidentiality clauses, 임금 수준 등)를 준수토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새로운 NLRB의 적용 대상은?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물론 노조와 비노조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2. 적용되지 않는 곳은? 공립학교, 도서관, 공원 등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번 결정은 소급 적용되나?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고용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소급 적용될 수 있다.

4. 이제는 종업원들이 고용주로부터 퇴직금 받는 대가로 회사나 회사 상태에 대해 결코 언급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 고용주는 어떤 환경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가능할 수 있다. 고용주는 관련 기관에 해당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5. 새로운 결정이 고용주의 향후 퇴직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피소 가능성 등 향후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금을 제공한다.

CNN Business 기사

WSJ: Amazon Expands Same-Day Delivery, With Fees, While Battling Slow Growth

아마존, 저성장 맞서 “당일 배송” 서비스 확대

- 아마존이 저성장에 맞선 비용 절감을 위해 초고속 당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 타 분야의 계획을 축소하고 물류 시스템 속도를 높이는 데에 전념하는 모습이다.
- 아마존의 초고속 배송 전략의 핵심은 same-day sites라고 불리는 창고 네트워크에 있다. 이 시설에는 소비자의 주문 즉시 배송이 가능하도록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
- 아마존은 이 기술을 월마트, Instacart와의 경쟁 방안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일 배송은 비용이 높은 만큼 소액 주문의 경우 수수료가 붙으며, 점차 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될 예정이다.

WSJ 기사

CNBC: A South Korean telecoms giant wants to launch flying taxis in 2025 and expects it to be big business

SK 텔레콤, 2025년 항공 택시 출시 계획

- SK 텔레콤이 작년부턴 미국의 전기 수직 이착륙 차량(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vehicles) 제작사 Joby Aviation과 제휴를 맺고 항공 택시를 개발하면서, 2025년 한국에서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해당 사업은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25년 중순까지 상용화를 이룬 뒤, 점차 의료, 물류 및 관광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SK는 점차 큰 수입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컨설팅 업체 Roland Berger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6만 대의 무인 전기 드론이 항공 택시와 같은 시스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9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C 기사

[보고서]

모건스탠리 주간 에쿼티 전략: Testing Critical Levels

- With the equity market showing signs of exhaustion after the last Fed meeting, the S&P 500 is at critical technical support.
- Given our view on earnings, March is a high risk month for the bear market to resume. On the positive side, the US dollar could allow equities to make one more stand.

모건스탠리 보고서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강달러에 이달 원화 가치 6%↓...주요 신흥국 중 하락률 2위"

"되살아나는 美 인플레이 우려에 달러 강세..."원화·บาท 싸보여" 의견도"

최근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며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 중인 가운데, 특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이번 달 들어 6% 넘게 빠지며 주요 신흥국 가운데 2번째로 큰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간 27일 오전 10시 10분 기준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주요 신흥국 23곳 통화의 달러 대비 수익률에 따르면 원화 가치는 2월에 6.32% 급락,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며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 루블화(-7.03%)에 이어 하락률이 2번째로 컸다.

또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중국 관광객 유입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태국 บาท이 5.58% 하락해 올해 상승분을 토해냈고, 위험자산 투자처로 인기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5.06%)도 지난해 말 수준으로 떨어졌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